

14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

학습목표

- 장기요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위기대응 대처 방법을 습득한다.
- 감염예방을 위한 원칙을 이해하고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필요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다.



1절 위험 및 위기대응

1. 의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법

위기상황은 흔히 사고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의 결과로 초래된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저혈당, 호흡곤란, 질식 등은 대상자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의학적 위기상황이다. 반면 낙상, 골절, 화상, 출혈, 약물중독, 교통사고 등은 사고에 따른 위기상황이다. 이때 영양보호사는 항상 침착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명확한 의사소통을 실시하여 적절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다음의 단계들은 일반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올바른 대처방법이다.

가. 상황을 판단하라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사고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자기 자신 또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위기상황을 인지한 현재의 시간과 발생한 상황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나. 대상자를 살펴보라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본다. 만일 대상자가 평소와 달리 대답하지 못한다면 의식을 잃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의식을 잃었다는 것은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고 주변에 발생한 일들

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괜찮은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의식상태를 확인한다. 이때 큰 소리로 이름을 불러야 할 수도 있다. 여전히 반응이 없다면 의학적 위기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신속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언제 어떻게 119에 신고할 것인가?

근무시간 중에 의학적 위기상황이 발생했다면 언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가? 만일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119 구급대원은 신고를 받은 후 통상 15분 이내로 현장에 도착한다. 만일 요양보호사가 혼자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만일 가족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면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 후자의 경우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곁에서 상황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피도록 한다. 119에 신고한 직후 요양보호사는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어떠한 이유로 119에 신고했는지를 알려야 한다.

119에 신고할 경우 구급대원에게 알려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다. 통상 구급대원이 질문을 하며 신고자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① 상황이 발생한 곳의 정확한 주소
- ② 대상자의 상태(나이, 성별, 주요 상황, 필요시 간략한 질병력)
- ③ 신고 이유(요양보호사로서 가까이에서 관찰했음을 밝힐 것)
- ④ 응급처치를 실시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밝힐 것

119 구급대원이 끊어도 좋다고 할 때까지는 먼저 전화를 끊지 않는다. 신고를 완료했다면 구급대원이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

다. 응급처치를 실시하라

만일 대상자가 대답 또는 무언가 말을 한다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 물어보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의 위기징후들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 상당한 출혈
- 의식의 변화
- 호흡 불안정
- 피부색의 변화
-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름
- 심한 통증

이상징후가 하나 이상 관찰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만일 몇 분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기관장과 가족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만일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응급처치란 당황하는 환자 곁에서 손을 잡고 안심을 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한다. 이는 환자를 안심시키면서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가족 또는 기관장에 보고하라

만일 묻는 말에 대상자가 명료하게 대답하고,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적이며, 뚜렷한 위기징후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9에 신고할 필요는 없다. 낙상, 화상, 열상 등의 경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기관의 방침에 따라 가족에게 연락은 기관장(수퍼바이저)이 연락할 수 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사무실에 돌아와서 위기상황에 대한 기록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기관에 따라 요양보호 기록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지만 <상태기록지>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때 가급적 자세히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던 것 같다’로 기록하지 말고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에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00조치를 하였음’이라고 작성한다. 이와 같은 기록문서는 위기상황에 대해 나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이다.

2.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

재난상황은 화재, 홍수, 태풍, 지진, 정전, 전기사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발생한 긴급상황을 뜻한다. 요양보호 대상자는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인구집단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상 침착해야 한다. 핸드폰(인터넷) 또는 텔레비전을 계속 켜두고 현재 상황의 최신정보를 계속 수집한다. 필요시 기관장(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하여 행동지침을 전달받도록 한다. 만일 예측된 보도를 통해 대처할 시간이 있다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가. 화재

평소에 화재 발생시 진화요령과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방법을 익혀둔다.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을 떠나지 않거나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

건이나 세탁물을 가까이 두지 않는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한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눈(연기가 보이고 따가워진다), 코(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난다), 귀(사람들의 아우성이나 비상벨 소리가 난다), 촉각(무언가 열감이 느껴진다)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인지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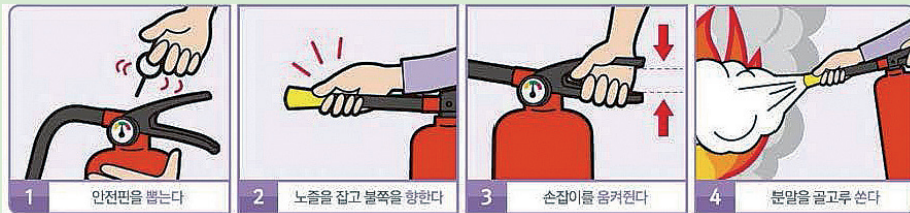
만일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이 사실을 알린다. 그리고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불길의 천장까지 닿지 않은 불이라면 소화기나 물양동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한다. 만일 불길이 커져 끄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시 뜨거운 연기는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인다. 연기나 어둠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이동한다. 만일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옥상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때 옥상 출입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 point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밖으로 대피할 때를 대비하여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쏜다.

- ① 안전핀을 뽑는다.
- ②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 ③ 손잡이를 움켜쥜다.
- ④ 분말을 고루 쏜다.



나. 수해와 태풍

평소에 유사시 대피 경로와 본인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일기예보를 통해 풍수해 경보를 듣게 된다면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하여 욕조에 물을 미리 받아둔다. 만일을 대비하여 응급약,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챙겨둔다.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연료를 채워둔다. 침수가 우려되는 낮은 지대(예를 들어, 지하주차장)를 피하고,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근처, 방파제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물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 모래주머니 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막는다. 이차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가스와 전기는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한다.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몸이 물에 젖었다면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다. 지진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탁자가 없을 경우 머리를 팔로 감싸서 보호하는 자세로 웅크린 채로 대기한다. 창문 근처 등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곳은 피한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대피를 시도해서는 안된다.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이동한다. 휴대폰(인터넷)이나 라디오의 안내를 따라 공공 대피장소로 이동한다.

라. 정전 및 전기사고

손전등 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주변을 밝힌다. 가정용 산소호흡기와 같이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장비가 중단될 경우 119에 신고하여 긴급후송을 준비한다. 만일 전기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119에 신고한다. 긴급한 상황이 없을 경우 누전차단기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정전의 원인을 살펴본다. 만일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공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정전이 복구되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기기를 연결하지 않는 등 평소와 전기사고 예방에 신경을 쓴다. 냉장고 안에 냉동식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미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재냉동하지 않고 버린다.

〈참고문헌〉

- Leahy W, Fuzy J, Grafe J. (2021). Providing Home Care – A Textbook for Home Health Aides(6th ed.). Hartman.